

전염병도 무섭지만...“밥줄 끊기는게 더 무서워”

코로나19에 광주 인력시장 일감 반토막 ‘힘겨운 나날’ 일용직·가사도우미·알바생 등 일자리 없고 생계 걱정

♣ 5일 새벽 5시 50분 광주시 북구 중흥동 태봉인력사무소. 6시도 못됐지만 30분 전부터 일거리를 찾아 나선 50여명의 일용직 근로자들로 북적였다. 일용직 노동자 이모(65)씨는 일감이 얼마나 줄었다고 묻자 “(일감이) 없어도 너무 없다”며 인상을 썼다. 그는 “가뜩이나 경기가 딱딱한데,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아주 죽을 맛”이라고 힘없이 말했다. 난로 옆에 앉아있던 담배를 피우러 나선 다른 일용직 노동자 김모(52)씨는 “코로나에 직격타를 맞아 가게 문을 닫은 뒤 다른 일거리를 찾아 나온 사람도 봤다”며 “일감은 없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몰리다보니 다들 힘들다”며 담배연기를 길게 뽑았다.

송주찬(59) 인력사무소장은 “오늘 일을 못하면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남들 출근하는 시간, 일거리가 없어 집으로 가는 기본이야 오죽하겠나”고 안타까워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광주·전남 전역을 집어삼키면서 하루 벌이 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일용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가사도우미, 아르바이트 등 고용시장에서 약자인 이들이 직격탄을 맞

으며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인력시장의 경우 정부 규제로 건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공공공사가 중단되는 등 공사 현장이 줄면서 노동자들의 일거리도 줄어들었다.

송 태봉인력사무소장은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이 시간이면 80여명 가량이 일거리를 찾아나갔을 시간”이라며 “아예 반토막 났다”고 푸념했다. 이날 새벽에 나와 기다리던 노동자들은 2시간을 기다리다가 7시를 넘겨 “오늘도 공했다”며 사무소를 나섰다.

식당 일자리도 줄었다. 대학생 정모(여·24)씨는 “6개월 간 일했던 식당 일을 지난 달 그만뒀다. 손님이 몰려 손님이 달려야 인력을 필요하는데 정씨가 일했던 가게는 경기 침체에 코로나19로 찾아오는 손님마저 없으니 문을 닫으면서 일방적으로 해고된 것이다.”

정씨는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적당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광주시노동센터는 이같은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지난달부터 잇따르고 있다.

대면(對面) 공포가 확산하면서 집 안에



서 아이를 돌보거나 가사일을 돕는 가사도우미들은 생계 위기에 내몰렸다.

광주YWCA가 지원을 받아 가정집에 투입하는 가사도우미들의 경우 최근 300명 중 2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외부인과 대면 접촉을 꺼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가사도우미들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가사도우미 교육도 중단된 상태다.

광주YWCA 관계자는 “수입이 끊긴 가사도우미들의 일감 찾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YWCA 구내 식당 근로자 2명도 무급휴가에 들어갔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중단되면서 직원들 12명도 무급휴가에 들어간 상태다.

광주시노동센터 관계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건설노동자, 가사도우미 등은 일반적으로 일자리를 잃더라도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코로나 19사태를 계기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5일 새벽 광주시 북구 중흥동 ‘태봉인력사무소’를 찾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난로 앞에 모여 앉아 대기하고 있다. 이날 인력사무소를 찾은 50여명 중 일부는 일감을 찾지 못해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김민석 기자 mskim@

전남대병원·기독병원 등 광주·전남 13곳 국민안심병원 지정

호흡기질환 전문 진료구역을 마련해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찾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이 광주·전남에 13곳 지정됐다.

광주에서는 전남대병원과 기독병원·서광병원 등 3곳이 전남에서는 장흥종합병원, 목포기독병원, 순천한국병원, 성가톨릭병원, 목포중앙병원, 목포한국병원, 여천전남병원, 여수한국병원, 여수제일병원, 고흥종합병원 등 10곳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선정됐다.

전남대병원은 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을 통해 국민안심병원을 설치, 병원을 방문한 호흡기질환 환자를 방문부터 외래진료 혹은 입원까지 모든 동선을 다른 환자들과 분리해 오는 9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다.

5일부터 진료에 들어간 광주기독병원도 코로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하고, 음압격리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남구청사 승강기 옆에 비치된 이쑤시개.

승강기 버튼 손가락 대신 이쑤시개로...이색 아이디어 눈길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이색 아이디어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쑤시개나 면봉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가 하면, 일회용 장갑을 끼고 장을 보는 등 신종 코로나 감염 경계를 강화하는 지역민들이 생겨나고 있다.

광주시 남구청사 내 승강기 옆에는 이쑤

시개 수백개를 꽂은 노란색 스티커가 부착됐다. 스티커 위에는 “잠깐, 버튼은 손 대신 이쑤시개로 눌러요”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건물 이용객들이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를 경우 간접 접촉으로 바이러스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 일회용 이쑤시개를 이용해 막자는 취지다. 아래쪽에는 쓰고 남은 이쑤시개를 버릴 수 있도록 종이컵도 비치했다.

강희숙 남구 장애인복지과 주거 복지담당 계장이 아이디어를 냈다.

면봉을 비치하는 아파트도 생겨나고 있다. 광주시 동구 용산동 계룡리수빌더포레스트 아파트에는 승강기에 면봉이 달린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컵을 달았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전날 교장 취임 회식 후...완도 한 고교 관사서 교직원 숨진 채 발견

완도지역 한 고등학교 관사에서 40대 교직원 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교직원은 전날 학교측이 마련한 교장 취임 기념 단체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 2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향후 1~2주 모든 모임과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뒤 열린 단체 회식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완도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10분께 완도군 금일면 A고등학교 관사에서

교직원 이모(4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출근을 하지 않아 관사에 가보니 숨진 채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 소방당국에 신고했다는 동료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신입 교장 취임식 기념회식 후 회식회차에 참석했다는 점을 들어 잠겨 있었고 외부 침입이나 외상 등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평소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는 유족과 동료들 진술을 확보, 부검을 거쳐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가능한 모든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고 권고했음에도 학교측이 회식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을 들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ejhung@

여직원에 불링핀 던진 만취 여대생

○···불링핀 여직원 얼굴에 불링핀을 집어 던진 만취 여대생이 폭행 혐의로 경찰서행.

○···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여·19)씨는 지난 4일 밤 11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K불링장에서 투숙하는 손님들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웠는데, 점원(여·29)이 제지하며 막아서자 욕설과 함께 카운터에 진열된 불링핀을 얼굴에 던졌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혼자 빠져나온 A씨가 불링장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것 같다. 만취 상태라 불링장에 왜 들어갔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태”라고 설명.

/김민석 기자 mskim@

오늘의 날씨

| | | | |
|-----|-------|-----|-------|
| 해돋이 | 06:56 | 달뜨기 | 14:28 |
| 해질 | 18:32 | 달참 | 04:21 |

큰 일교차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구름 많겠다.

| | | | | | |
|----|------|-------|-----|------|-------|
| 광주 | 구름많음 | -2/13 | 보성 | 구름많음 | -5/11 |
| 목포 | 구름많음 | -2/8 | 순천 | 구름많음 | -2/13 |
| 여수 | 구름많음 | 1/11 | 영광 | 구름많음 | -4/10 |
| 나주 | 구름많음 | -5/12 | 진도 | 구름많음 | -1/8 |
| 완도 | 구름많음 | -1/12 | 전주 | 구름많음 | 3/12 |
| 구례 | 구름많음 | -4/15 | 군산 | 구름많음 | -3/8 |
| 강진 | 구름많음 | -4/12 | 남원 | 구름많음 | -5/13 |
| 해남 | 구름많음 | -5/11 | 흑산도 | 구름많음 | 2/8 |
| 장성 | 구름많음 | -5/13 | | | |



◇ 바다 날씨

|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 (m) | 풍향 | 파고 (m) | |
| 서해 남부 | 앞바다 | 남동~남 0.5~1.0 | 남동~남 | 0.5~1.0 | |
| | 면바다(북) | 남동~남 | 1.0~2.0 | 남동~남 | 1.0~2.0 |
| | 면바다(남) | 남동~남 | 1.0~2.0 | 남동~남 | 1.0~2.0 |
| 남해 서부 | 앞바다 | 남동~남 | 0.5~1.0 | 남동~남 | 0.5~1.0 |
| | 면바다(서) | 북~북동 | 1.0~1.5 | 남동~남 | 1.0~1.5 |
| | 면바다(동) | 남동~남 | 1.0~2.0 | 남동~남 | 1.0~2.0 |

◇ 생활지수

| | |
|------|-------|
| 감기 | 매우 높음 |
| 뇌졸중 | 높음 |
| 미세먼지 | 보통 |

◇ 주간 날씨

| 7(토) | 8(일) | 9(월) | 10(화) | 11(수) | 12(목) | 13(금) |
|------|------|------|-------|-------|-------|-------|
| ☁ | ☀ | ☁ | ☀ | ☀ | ☀ | ☁ |
| 3/13 | 5/19 | 7/18 | 9/11 | 2/11 | 2/15 | 5/16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